

연중 제25주일

기도서 439 면(A해)

제1독서 : 이 사 55, 6-9

제2독서 : 필 립 1, 20c-24. 27a

복 음 : 마 태 20, 1-16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홍보국
인쇄	판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감 론



“옛장수 맘대로”

범 영 배 신부

우리의 주위에서 힘센 자들의 횡포나 변덕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 자신의 맘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다 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시킨 배상사건이 있는가 하면, 자국(自國)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상무성이 내린 예비판정 등이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나, 특별히 자신만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선심을 쓰는 경우도 자주 본다. 고속도로 개통이라든지 석방과 복권조치 등이다.

우리는 서글프게도 이러한 현실을 자주 접하다 보니 “옛장수 맘대로”라고 이야기하고 무관심하게 강자의 횡포를 지나쳐 버린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는 진정한 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품삿을 줄 때 불공평하게는 했지만 결코 횡포나 변덕을 부리지 않고, 진실을 오도시키기 위한 선심을 쓰지 않는 주인의 태도는 “자비”이다. 약속대로 일찍부터 일한 일꾼에게나 늦게 온 일꾼에게나 한 데나리온의 품삿을 주었다.

신자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분은 횡포를 부리지거나, 변덕스럽게나, 값싼 선심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먼저 불림받았다고 우대를 받거나 늦게 불림받았다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충실하게 일하는지에 따라 품삿을 받을 뿐입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무조건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생활을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신자의 의무만을 지키려는 소극적인 생활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저 주일미사만 참여하고, 자신은 조상때부터 주님께로부터 불리움 받았으니까 많은 품삿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을 우리의 품삿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횡포나 변덕을 부리지 않으시지만, 값싼 선심을 써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고 자비로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 향하는 우리의 열정이 없다면 자비 역시 받지 못합니다. 맘을 뻔뻔 흘리며 혼신의 힘을 다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가 되도록 합시다.”(필립비 1, 20c~21a)

(한들, 주일신부)



그래도 나누어야

1. 전주 번두리지역의 구역미사에 40여명의 신자들이 모였다. 남자 5명이 모두 40대 이상이어서 청년들은 왜 없는가 하고 물었다. 젊은이들은 더 큰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나갔단다. 17살 먹은 소년은 동사무실에 나가기 때문에 주일에도 성당에 나오기가 어렵단다. 그들이 모인 곳은 세 가구가 함께 사는 집의 대여섯명 남짓한 마당이였다. 땅바닥에는 비닐 자리를 깔고 평상을 하나 놓으니 아쉬운대로 자리는 되었다. 그래도 비좁아 어떤이들은 장독대 주위에도 앉고 부엌문에 기대기도 하였다. 그들은 함께 사는 이웃방에 신경을 써가며 미사를 봉헌했다. 미사를 마치고 그들은 날계란과 봉지우유를 나누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환하게 웃었다.

그들은 어느 누구를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다. 그들의 가장 큰 밑천인 인정을 웃음으로 나누며 살고 있다. 아름답게.

2. 서울 올림픽에 대한 체육부장관과 외신기자의 이야기(설명)에 대해 어느 신문은 그 사실에서 「2조원은 누둔인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적고 있다. 「서울 올림픽에 소요되는 30억달러(로스앤젤레스의 7배쯤) 가운데 도시정비 등 간접비용 15억달러는 서울 시민이 내게 된다. 그러나 서울 시민은 꿀먹은—아니 돈대는 병어리나 갈고, 의논 한 마디 들어본 적 없는 그냥 돈만 내는 커머저리나 다름없고, 똑똑하다는 그들은 결국 돈이나 내는 소경이다. 지방자치제가 안되면 지방주민도 마찬가지 꼴.」(한국일보 8월 28일자)

이쯤되면 구조적인 제도(폭력) 앞에서 무엇을 나눌 수 있는가? 있다. 우리는 “묵인 사람들에겐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에겐 시력을 주고, 억눌린 사람을 놓아주는 기쁜 소식”(루가 4, 18)을 나누어야 한다. 순교자들을 다시 한 번 기억하면서.

숲 정 이 산책



교구 신자들의 협조바람

□ 노동 관계법 개정 서명운동 ⑧

노동자의 단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II)

2. 복잡한 신고서류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13조 제3항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제출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정 구비서류 외에도 임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신원증명서 등을 보완 제출하게 함으로써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갖추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다. 실제로 행정관청에 의해 "서류미비"라는 명목으로 반려되는 경우도 적지않다.

설립심사가 행정관청의 일방적 판단에 맡겨지게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사용자와 정부기관의 노동조합 결성 방해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노동자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결성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그러므로 부족한 서류는 추후에 보완되도록 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3. 신고필증이 있어야 노동조합인가?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행정관청의 자의대로 박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사실로써 즉한 것이지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만 인정되는 것은 자유설립주의에 위배된다.

법률상 "신고"란 어떤 법률적 사실을 말이나 글로 관계관청에 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관계관청에 알리는 것으로 그치며, 이에 대하여 관계관청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제도는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도 있고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신고가 아니라 "노동조합설립 허가 제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자주적 단결권을 규정한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제도이다.

노동조합 결성 후 신고하지 않았다고 노동조합 결성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서류가 부족하다고 반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신고서를 받는 즉시 무조건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한다.

「성서사도직의 세계 가톨릭 연맹」(WCFBA)

1984년 8월 12~25일까지 인도 방갈로에서 제3차 「성서사도직의 세계 가톨릭연맹」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은 문자 그대로 성서 사도직에 관한 것이다. 이 조직은 각국의 가톨릭 신자들이 하여금 성서에 대한 눈을 뜨게 하고, 성서 신심을 일깨우며, 성서에서 영성을 뽑아내게 하는, 말하자면 **성서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의 제3차 모임에는 53개국에서 119명이 참석하였다.

제3차 모임에 있어서의 주제는 「모든 사람이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민수기 11:29)였는데, 이에 대한 결론은 각 분야에 임하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언자가 될 수 있고 또 돼야 한다는 것이다. 크리스찬인 우리 모두는 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진 이 세상에서 예언자적인 사명으로 살아가도록 불리움을 받았다. 우리는 자기 다른 세태의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성서를 통해서 불변의 하느님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희망은 주님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희망으로 산다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느님께만 고착되기 때문이다. 하느님께만 고착되는 우리의 삶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살이에서 새 사회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야훼에 의해서 주어진 예언자적인 도전인 것이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예언자이신 예수님의 예형들이다. 예수님은 사랑, 자비, 생명 찬미의 하느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다(루가 4:18~20).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분은 **당신의 왕국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칠 것을 역설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새 백성을 창조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새 백성은 인간적이며, 정의로운 새 사회를 건설하는 데 다같이 자기의 몫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인도는 한마디로 양면성(兩面性)이 다분한 나라이다. 가난한가 하면 부자이고, 지극히 종교적인가 하면, 친소(親蘇)적이다. 거리마다 벽에 소련 국기가 그려져 있었다. 물질의 결핍에서 오는 정신영역의 침해라고 볼 것인가? 한편 인도의 가톨릭은 완전히 토착화되었다는 느낌이 있었다. 이 점에 있어서 나는 참으로 그들이 부러웠다. 복음의 뿌리와 그들 영성의 뿌리가 완전히 접목되어 무엇인가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 우리는 동양을 연구하고, 한국을 연구하여, 우리 영성의 토양에 그리스도교가 깊이 뿌리박아,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베소라 성서연구-김 정원 신부)

성인탄생 경축 사진전(나 춘성 신부)

기간: 1984. 9. 23~29(09:00~21:00)

장소: 가톨릭 센터 1층 다방

후원: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친목회

협찬: 스타 사진관

마기환 안과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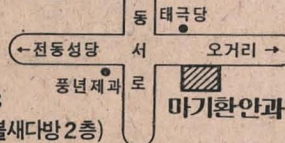
부설: 새한콘택트렌즈

원장 안과전문 마기환

한 남 희(비리시타)

TEL. 75-2203

(시집가는날. 태극당 건너편 불새다방 2층)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미영의(투리포니아)

천사의 집

(마춤·빌림·반환)

웨딩드레스·연주복·약

흔복·신부화장·부케·

비디오 촬영

(성물 선물드림)

·전동성당에서 행복 예식장

중간

대표: 유 가타리나

(경) 한국 성인 탄생 경축대회 (축)

“서로 나누어 이 땅에 빛을”

오늘(23일) 오전 10시 부터 순교 성지 순정이(전주 해성중·고 교정)에서는 성인 탄생을 경축하면서 그분들의 모범을 따라 진리를 증거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며, 한 형제로서 서로 사랑을 나누기 위한 교구 경축대회가 열린다.

오늘의 행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 1부 : 빛나는 조상의 얼과 우리의 다짐

*성인 유해 행렬 *오늘의 삶 소개-김 진소 신부

*신앙고백-오 응진 신부(꽃동네 지도신부)

제 2부 : 경축 대미사

교구 상인 상품 전시회 : 오후 1시부터

□ 옥봉본당 신설

지난 16일 옥봉성당 기공식과 함께 주임신부(이 재후 신부)가 임명됨으로써 전주교구 42번째 본당이 탄생되었다. 임시사제관을 세워서 월명동본당에서 분리, 200주년 기념성당으로 지어지는 옥봉 새 성당의 건립을 위해서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관할구역 : 전북 옥구군 옥구읍 일원

사제관 주소 : 전북 옥구군 옥구읍 옥봉리 내성산 74-12

전화(군산) ⑦2004

□ 사제 인사이드

9월 17일자로 교구 사제 인사이드가 아래와 같이 있었다.

성명	제시된 곳	가시는 곳
양재철 신부	미국 교포 사목	월명동 주임신부
이재후 신부	월명동 주임신부	옥봉 신설본당 주임신부
김기수 신부	로마 유학	대전 신학 대학

□ 목요성서 강좌

여러가지 사정으로 방학했던 목요성서 강좌가 다시 문을 연다. 구약과 신약 중에서 인류 구원에 관한 내용이 깊이있게 담겨진 복음들을 선택하여 공부하게 될 목요성서에서 많은 이들이 더 큰 찬미와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일시 : 9월 27일(목) 오후 7시30분 장소 : 전주 가톨릭 센터

강사 : 문규현(바오로) 신부

대상 : 성서 공부를 원하는 사람

준비 : 성서·필기구·회비-월 2천원

□ 수재민 돕기 특별헌금 모금

이미 보도를 통하여 아는 바와 같이 뜻밖의 수해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수재민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구에서는 이들에게 형제적 사랑과 나눔을 베풀고자 수해의연금을 모금하고 있다. 교구 내 모든 본당과 기관에서 모아지는 수해의연금은 10월 5일 까지 교구청 사목부에 보내야 하며, 거두어진 헌금은 해당지역 교구를 통하여 전달하게 된다.

♣ 교회 간행물을 읽읍시다

*가톨릭 신문 *생활성서 *경향잡지-구독신청은 홍보국으로!

대금을 미납하신 분은 직접 혹은 본당 사무장님을 통하여 교구청 홍보국에 내어 주시거나 우편대체를 이용하여 송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편대체 :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천주교 전주교구청 홍보국 400010-31-9026907

요십이(581)

우리가 신나게 시청한 세계권투시합 도전자가 가져왔다고?

우리는 시청료내고 우롱 당했구나!


거기 KBS TV방송국입니까?

요새 방송하는 뉴스는 진짜입니까?

학원생 수시 모집(주·야)
철저한 개인지도
V. T. R로 산 교육화
현대 미용학원
전주시서노송동(중앙성당앞)
원장 : 김 테레사(금순)
☎ ④ 9206 · ③ 5289

신속배달 설비시설
한국 가스 상사
☎ 3-1457 · 72-0612
김 설 두(토마스)
이 미 자(안젤라)

•혼수(회갑) 옷감 | 도
•복수 파티복 | 매
•고급 침구류 * 상
•각종 솜 일체 |
•커네티지 |
서울주단
☎ ③0453 ⑥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특수자연시 컴퓨터를 설치한
보안당  센타
가볍고, 얇고, 원근조절 렌즈,
김 안서리는 렌즈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족시켜 드리겠
읍니다.
전주구역전오거리 ☎ 3-3032

위상양내과의원
◎ 종합검사 내시경 및 초음파 검사시설완비
전주시 고사동 1가 184
(구 역전오거리)
☎ ②9152. 1752
위 상 양 (프란치스코)
김 병 희 (글 라 라)





1. 혼인범원 개원 : 24일 오전 10시, 장소-교구청
 2. 젊은 여성들을 위한 주말 목사회 : 29일 오후 4시~30일, 장소-가톨릭 센터 3층, 대상-수도성소에 관심 있는 여성(여고 1년이상-일반 여성), 회비-4천원, 지참물-미사도구, 세면도구, 신구약성서
 3. 여성 제17차 꾸르실료 : 29일 오후 5시부터 10월 2일까지, 장소-가톨릭 센터
 4. 제 3기 혼인강좌 : 10월 6일~11월 3일(매 토요일) 오후 7시~9시, 장소-가톨릭 센터 3층 주회-교육국, 대상-만 19세이상 미혼 남·여(기혼자도 가함), 준비물-필기도구, 수강료-3천원
- 축! 영명 : 성 빈첸시오(27일)-이 병호 신부님 성 미카엘·가브리엘·라파엘(29일)-박 정일 주교님, 안 용기, 김 중걸, 박 중상, 범 영배, 박 환걸, 경 규봉 신부님

제 1 지구 각 분당 소식 ①

(중앙)

주임 신부 문 정 훈
보좌 신부 나 춘 성
사도 회장 김 인 협
전화 ②1711~3

1. 부활교리반 : 10월 7일 시작
 2. 유아세례 : 28일 10시30분 미사
 3. 애령회 : 28일 어머니미사 후, 월례회(어머니미사 후 ~2시까지) 뜻있는 분 참석 요
 4. 방ziger 3회 : 30일 오후 2시
 5. 레지오단원 치명자산 참배 : 29일 오후 3시 치명자산
 6. 복자반 영세자 : 10월 7일 공식미사후 치명자산 참배 도시락 지참
- 지난주 봉헌금 : 1,290,035원 교무금 : 609,800원
특별헌금 : 이 스테파노 감사헌금-5천원, 고 요셉과 나 감사헌금-3천원, 박 모니카 감사헌금-1만원

(노송동)

주임 신부 김 용 태
보좌 신부 이 성 우
사도 회장 이 흥 재
신부 ②0969
주·사 ②7032

1. 신축기금 신입합시다 : 박남태-60만원, 양기춘-20만원, 육봉순-72만원, 최종열-75만원, 조흥기·김인석·박희주·박태봉·육완태·최장훈·김준석·박규철·김양진·전창환·신길자·최순례-각 10만원
노제-2,147,000원, 노제-105,459,000원
 2. 시선 경축행사에 모두 참여합니다
 3. 본당의날 행사 : 10월 7일 오전 10시, 중앙여고에서 1부-주보미사 및 영세식, 2부-경축대회
 4. 유아영세식 : 29일 오후 3시
 5. 구역봉사자 모임 : 28일 저녁 8시, 교육관에서
 6. 예수성심회 성지순례 : 24일 오전 6시30분 출발 장소-서울 절두산
 7. 요셉회 및 성모회 성지순례 : 10월 9일(베른성지 및 연풍성지), 참가비-7천원, 인원제한 선착순-40명
 8. 구역잡 입, 면 : 중노1가 3구역·남노3구역·인후8구역, 면적-황향순·최정자·노영석, 임명-양정숙·김은자·서성남
 9. 협의회 임원개편 : 회장-조해영, 부회장-이태영, 서기-김천호, 회계-이정은, 수고하시겠습니까
 10. 청년들 위한 미사 : 매주(화) 저녁 7시, 참여 바람
 11. 공소 순회미사 : 29일 저녁 8시, 왕정리공소
- 지난주 봉헌금 : 416,500원 아파트 : 143,260원
교무금 : 441,000원 아파트 : 75,000원

(덕진)

주임 신부 김 봉 희
보좌 신부 김 요 안
사도 회장 양 상 열
전화 신부 (3)2182 주임 신부 김 봉 희
수녀 (72)1222 보좌 신부 김 요 안
사무 (72)6259 사도 회장 양 상 열

1. 모임 안내 : 진북 편집위원회-24일 밤 8시, 전례 교육분과위원회-26일 밤 8시, 재경 봉사분과위원회-28일 밤 8시
 2. 새 영세자(82~84년 영세) 성지순례 : 30일(오전 8시 순경이 집결 출발) 오늘까지 신청 마감합니다
 3. 본당의날 행사 및 견진(10월 3일 예정) 주교님 출장관제로 11월 4일 연기-각단체 준비바람
 4. 다음주 공소미사 없음(29, 30일)
 5. 반(형제) 모임 일정정보 : 매월 25일까지 사무실에 연락 바람
 6. 금주 분당청소 : 주일학교(29일 오후 3시)
 7. 다음주 모임예고 : 진북회
- 지난주 봉헌금 : 619,525원 교무금 : 375,000원
추석합동 위령미사 예율 : 384,300원

(복자)

주임 신부 권 영 규
보좌 신부 김 성 원
사·수 2-5238 사도 회장 김 성 원
사제관 75-0592

- ※ 본당신부님 휴가 : 2~4일까지 미사 없음
1. 사도회 : 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2. 성인탄생 경축대회 : 오늘 오전 10시 해성학교 (분당미사는 저녁미사만 있음)
 3. 성지순례 : 25일 오전 7시30분 출발, 장소-솔피·해미, 24일 오후 5시까지 선착순 접수, 회비-5천원
 4. 수제외연금 특별헌금 : 30일 준비 바람
 5. 사무장 휴가 : 25~29일
 6. 1지구 주일학교 체육대회 : 10월 9일
 7. 예비자교리 오늘~다음주일까지 힘 : 10월 7일부터 함
 8. 금주 성당청소 : 월-다위의 탑, 토-셋벨
 9. 차주 성당청소 : 월-황금의 궁전, 토-이 땅에 빛이신 모후
 10. 금주전례 : 해설-유덕열, 독서-①조성호 ②정운주
차주전례 : 해설-황만균, 독서-①이갑진 ②정동민
- 지난주 봉헌금 : 129,070원 교무금 : 408,520원

(서화동)

주임 신부 김 동 준
보좌 신부 김 낙 균
신부 ②8307번 주임 신부 김 동 준
수녀 ②2276번 사도 회장 김 낙 균

1. 성인탄생 경축대회 : 오늘 오전 10시, 해성학교 교정 (분당 10시미사 없음)
 2. 영세대상자 1일 목사회 : 오늘 오후 3시-참석 바람
 3. 영세식 : 29일 오후 3시, 42명의 영세식이 있습니다 관계되는분 시간 엄수 바랍니다
 4. 차주전례 : 해설-김낙완 ②김은경, 독서-①김낙균 ②김광수, 기도-치명자의 모후 Pr
- 지난주 봉헌금 : 325,710원 교무금 : 271,500원

(숲정이)

주임 신부 김 종 길
보좌 신부 김 수 겸
전화 ②7366 주임 신부 김 종 길
수녀 ②9567 사도 회장 김 수 겸

1. 성모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누깁다 부녀회 피정 : 천호공소, 10월 9일 참가비-3천원(사무실에 접수 바람)
 3. 한국 성인탄생 경축대회 : 23일 오전 10시 당일 분미미사는 오후 7시에만 있음
 4. 유아영세식 : 10월 13일 오후 2시(사무실에 접수)
 5. 성인영세식 : 10월 20일 오후 3시
 6. 금주전례 : 해설-이기호, 독서-기도-이철수·이순주
차주전례 : 해설-이기호, 독서-기도-정주복·이은자
- 지난주 봉헌금 : 198,230원 교무금 : 302,800원

(전동)

주임 신부 김 치 삼
보좌 신부 정 양 협
전화 신부 ②6208 주임 신부 김 치 삼
사무 ②3222 보좌 신부 정 양 협
수녀 ②8347 사도 회장 김 병 오

- ☆ 성인탄생 경축대회의 날 : 학생미사·공식미사 없음
- 축! 영세 : 전심으로 축하합니다
1. 글라라 형제회 : 다음주 오후 1시30분
 2. 주일학교 성지순례 : 10월 1일, 어린이·학부형 참석
 3. 주일학교 도서수집 : 보지 않는책 회사 바람
 4. 청년 철야 피정 : 10월 2일 저녁 8시~3일 아침 5시까지, 본당내 청년 전원 참석 바람
 5. 성령기도회 :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6. 200주년 기념사업에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람
 7.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이주영, 독서-①김동원 ②최병래
공식미사 : 해설-양현홍, 독서-①김병오 ②정진훈
저녁미사 : 해설-김윤주, 독서-①최종만 ②최원일
- 지난주 봉헌금 : 900,420원 교무금 : 567,500원

(호자동)

주임 신부 박 중 신
보좌 신부 이 교 성
전화 신부 75-3841 주임 신부 박 중 신
수녀 2-4804 보좌 신부 이 교 성
사무 2-0915 사도 회장 이 교 성

1. 사도회 상임위원회 : 23일 저녁 6시30분
 2. 자모회 : 10월 14일(둘째주)
 3. 유아세례 : 30일, 학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325,825원 교무금 : 217,000원